마드리드 시청
(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면담 개요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20(금) 10:00 / 마드리드 시청**

(CALLE RIBERA DEL SENA, 21 PLANTA 6 (Edificio Apot) 28042 MADRID)

○ **참 석 자**

- 서울시 : 총괄건축가, 시설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 외 18명
- 마드리드 시청 : Mr. José Manuel Calvo del Olmo(Director of 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부부)

※ 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 계획; 도시 관리; 건물 관리; 활동 면허를 한 관리 시스템; 도시 계획 및 이동성; 도시 전략 프로젝트 및 도시 재생; 수리 작업의 개발 및 수행, 도로, 공공 공간 및 도시 시설의 보전; 신호, 조명 및 서비스 갤러리 및 도시 기반 시설 건설 작업 담당

☐ 주요 면담 내용 : 마드리드 도시공간정책 비전 및 실행과정 공유

○ **마드리드의 주요 도시공간정책 소개 : M-30, 리오 프로젝트 등**

○ **혁신적 디자인의 임대주택공급 : 산치나로, 까라반첼 지구 등**

○ **마드리드의 건축정책 공유 : 지역건축 서비스 등**

마드리드 시 현황

- 시 장 : 마누엘라 카르메나 Manuela Carmena / 2015년 5월 당선
- 조 직 : 10개 부처(46개과, 12개 사업소), 21개 자치구
- 개 요 : 위치 c/Alcala, 45-2 / 면적 607㎢ / 인구 300만명(부산광역시 수준)
- 건축특징 : 다양한 공동주택 공급_소셜하우징

마드리드 건축가협회(COAM, El Colegio Oficial de Arquitectos de Madrid)면담 개요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20(금) 15:00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
(Hortaleza 63, 28004 Madrid)

○ **참 석 자**

- 서울시 : 총괄건축가, 시설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 외 18명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 : Jose Luis Esteban Penelas(마드리드 대학 교수, 건축가협회 이사), Mr. José María Ezquiaga Domínguez (Director of COAM Comité ejecutivo), Mr. Carlos Lahoz Palacio(Patrono of COAM Comité ejecutivo), Mis.Elena Sarabia Castelló(Secretario of COAM) 등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COAM, El Colegio Oficial de Arquitectos de Madrid) : 마드리드에 있는 건축가들의 전문적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사회를 위해 건축의 문화적 ·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단체

❑ 주요 면담 내용 :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의 역할론 공유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의 설립 배경, 주요 역할 및 기관의 성격**

※ 관련법에 근거한 직능단체 여부 등

○ **운영예산 확보 및 공공기관의 지원 여부**

○ **정부의 도시·건축 정책 입안 시 COAM의 역할**

○ **민관이 협력하여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 소개**

○ **활기찬 도시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

○ **건축가와 건축의 가치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소개**

○ **COAM 소속 건축가들의 사회적 역할 등**

COAM(El Colegio Oficial de Arquitectos de Madrid) 소개

마드리드에 있는 건축가들의 전문적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사회를 위해 건축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단체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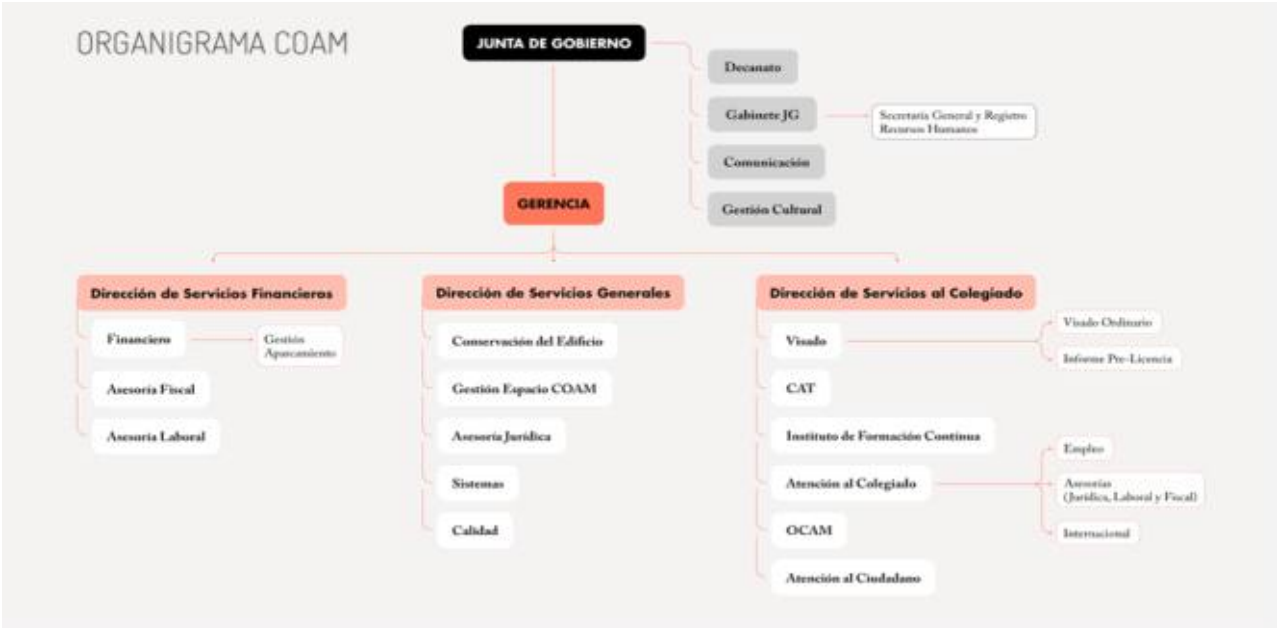
○ **설 립** : 1929년

- 1929년 국왕의 칙령에 의해 COAM을 설립, 중앙건축가협회(1849년 설립)의 기능을 계승
- 2002년 College Statutes에 따라 COAM의 조직과 운영 승인(마드리드 공동체 전문기구 관리법령(de Colegios Profesionales de la Comunidad de Madrid, 19/1997) 준수)

○ **목 표** : 마드리드에 있는 건축가들의 전문적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사회를 위해 건축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보호

○ **역 할** : ① 전문가의 기술, 능력 및 지적 재산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② 건축가의 업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와 교육 제공, ③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활동을 개발하여 건축가와 건축의 가치 교육

○ **조직구성**



발렌시아 시청
(Área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면담 개요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26(목) 10:00 / 발렌시아 시청**

(Pl. de l'Ajuntament, 1 46002 València)

○ **참 석 자**

- 서울시 : 총괄건축가, 시설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 외 18명
- 발렌시아 시청 : Sr. Vicent Sarrià i Morell (Director of Área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도시개발 및 주택국), Maria Jose Marcos(알리칸테 대학교수, 건축가)

❑ 주요 면담 내용 : 발렌시아의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추진방향 공유

○ **도시이미지 창조를 위해 특정 건축가(칼라트라바)를 적극 기용한 배경**

○ **발렌시아의 건축정책 방향 : 총괄건축가 등 관련 제도 유무**

○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위한 공공의 역할 등**

발렌시아 시 현황

- 위　　치 : 스페인 17개 자치주 중 하나로 이베이라반도 중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
- 시　　장 : 요한 리보 카누트, Joan Ribo Canut / 2015년 5월 당선
- 조　　직 : 10개 부처(43개과), 15개 자치구
- 개　　요 : 면적 134.65㎢ / 지역 정의에 따라 78만~150만
- 건축특징 : 세계적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예술과 과학도시'

※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지역 출신 건축가로서, 오페라 하우스, 공연예술센터, 과학박물관, IMAX영화관, 플라네타륨, 해양공원 및 산책로와 같은 구조물을 계획, 도시 중심부를 '예술과 과학의 도시'로 조성

바르셀로나 시청(Housing at Barcelona City Council) 면담 개요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27(금) 10:00 / 바르셀로나 시청**
(위치 Plaça de Sant Jaume, 1 – 08002 Barcelona)

○ **참 석 자**

- 서울시 : 총괄건축가, 시설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 외 18명
- 바르셀로나 시청 : Aurora López Corduente(Deputy Director of Urban Planning and Infrastructures), Jaume Barnada(Urban Ecology - Division of Sustainability), Manuel Gausa(IAAC 및 제노아 대학 교수, 학장)

❑ 주요 면담 내용 :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의 역할론 공유

○ **바르셀로나의 주요 도시재생 사례 소개 : 22@Barcelona Project 등**

○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절차 및 민·관 협력 체계 소개**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

※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도시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례 벤치마킹

○ **바르셀로나의 건축정책 소개 : 총괄건축가 제도 등**

바르셀로나 시 현황

- 위　　치 :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프랑스 남쪽 페레네 산맥과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에 위치
- 시　　장 : 아다 콜라우Ada Colau / 2015년 5월 당선
- 조　　직 : 4부시장 산하에 20개 부처, 10개 자치구
- 개　　요 : 면적 101.9㎢ / 인구 약 160난 2천명
- 성　　격 : 카탈로니아 자치 커뮤니티의 수도로, 카탈로니아 정부의 소재지이며, 바르셀로나 주와 바르셀로나 지구의 주도임
- 건축특징 : 건축유산과 혁신적 건축의 조화_가우디의 도시이자 스마트 도시 추구

바르셀로나 IAAC
(Institute for Advanced Architecture of Catalonia) 방문 개요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27(금) 15:00 / IAAC 캠퍼스**
(Pujades 102 baixos, Poble Nou, 08005 Barcelona)

○ **참 석 자**

- 서울시 : 총괄건축가, 시설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획과장 외 18명
- IAAC : Oriol Soler i Castanys(IAAC 총장), Manuel Gausa(IAAC 및 제노아 대학 교수, 학장) 등

☐ 주요 면담 내용 : 건축 관련 민간단체 역할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IAAC가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배경, 주요 역할

○ 22@Barcelona Project와의 관계

○ IAAC 운영예산 확보 및 공공기관의 지원 여부

○ 민관이 협력하여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 소개

○ 활기찬 도시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 등

IAAC 소개

- 설　　립 : 2000년, 바르셀로나 혁신 및 기술지구인 22@Barcelona 지구를 기반으로 함
- 위　　치 : 바르셀로나의 중심에서 20분 거리에 있으며 140헥타르의 숲으로 둘러싸인 Collserola Metropolitan 공원에 위치
- 조　　직 : 연구, 교육, 생산 및 홍보를 담당하는 4개 부서로 조직
- 설립목표 : 카탈로니아 첨단건축 연구소로, 우리 사회의 미래 환경을 구상하여 현재 구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연구, 교육, 생산 및 홍보하는 중심지.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도 교사, 연구원, 기관 및 회사들간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관계 형성
- 특　　징 :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고 유럽 전체의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프로젝트와 연구로, 우리사회와 도시에서 기술의 역할을 탐구·적용

주요탐방지(안)

스페인의 도시건축

① 고대역사
- ‘스파니아(Spania)’유래 : 페니키아에서 지중해 서쪽편의 ‘외지고 막다른 곳’, 또는 ‘해 지는 곳’
- 이베리아 반도 최초 원주민은 북아프리카 출신 이베로족, 기원전 800년경에 중부 유럽에서 켈트족 이주 = 켈티베로족 형성
- 기원전 12세기와 6세기경 세력을 확장해온 페니키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식민도시 건설

② 이베리아 반도의 로마화(B.C 219~A.D 411)
- 지중해에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두 세력의 각축장
- 2차 포에니전쟁(218-202 B.C.) 결과 한니발의 카르타고가 반도에서 축출, 스키피온이 이끄는 로마가 지배권 확립
- 로마화되면서 라틴어 전파, 도로, 다리, 항만, 극장 등 사회문화 기반시설 입지, 상당수 보전되어 주요 문화유적지 역할

③ 서고트 왕국(411~711)
- 5세기 초 수에보족, 반달족, 알라노족 등 게르만족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침입, 반도의 로마 제국은 해체 국면
- 로마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고트족을 끌어들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후 3세기 동안 반도를 서고트 왕국이 지배
- 서고트 왕국은 711년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과달루페 강가에서 이슬람 세력에게 패배

④ 이슬람 시대(711~1492)
- 이슬람 세력은 711년부터 1492년까지 근 8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 점령
-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초기에 정치적 종속관계에 있었던 중동의 압바스왕조를 능가하는 독립왕국 수립
- 이 왕국 이름이 바로 ‘알-안달루시아’, 당시 유럽대륙 최고의 문명국가 구축, 수도 코르도바는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지중해 제2의 도시
- 당시 기독교문명보다 선진적이었던 이슬람문명의 유입으로 도서관과 대학 실험실이 번창해 지식 연마
- 인종과 종교, 학문과 예술, 정치와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다양성 존중, 특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 삼색 종교와 문화 상호 수용
- 종교적 관용과 자유를 누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아랍의 이질적 문화유산이 수용되고 철학과 예술이 만개

⑤ 국토수복운동, Reconquista(9세기~1492)
- 이슬람 세력의 분열과 함께 9세기경 반도 북부에는 아스투리아스, 카스티야-레온, 아라곤, 나바라, 포르투갈 등 기독교 왕국 등장
- 기독교 세력의 국토수복(Reconquista) 기운 팽배, 권력다툼 끝에 코르도바 왕국 1031년 멸망, Taifa – 여러 개 왕국으로 분열
- 1085년 이슬람의 심장 ‘톨레도’마저 기독교도가 점령
- 국토수복과 국교 통일을 완성 -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두 가톨릭 군주
- 카스티야의 왕 엔리케 4세의 여동생 이사벨은 아라곤의 왕세자 페르난도를 택해 1469년 결혼
- 이사벨은 카스티야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베리아 반도에 유럽 최초의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들어설 기반 마련
- 중세 스페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 국토수복의 전사적 열정으로 응집, 대륙과 대양으로 뻗어나갈 정치적 에너지로 팽창
- 가톨릭군주들은 통일 스페인의 재정을 기반으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진출 지원
- 대서양 너머로 서구사회 지평을 확장하는 역사적 위업 달성
-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출발한 날은 마지막 이슬람세력 나사르 왕조가 그라나다에서 축출되던 바로 1492년 8월 3일

⑥ 나스르 왕국(1238~1492)
- 이슬람의 마지막 왕국이자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는 무하마드 1세가 세운 나사르 왕조의 도시
- 250여년 동안 유지된 이 도시의 알암브라 궁전은 당시 이슬람 문명의 진수 – 알람브라 궁전

스페인 – 마드리드(Madrid)

마드리드 개요

- 마드리드는 10세기경 톨레도 방어를 위해 무어인이 세운 성채에서 비롯
- 1561년 펠리프 2세가 당시의 강대한 왕국을 다스릴 중앙정부 청사를 건설하면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수도를 옮김
- 구(舊)시가는 17～18세기에 건설되었다. 옛 모습은 서남부의 마요르 광장(Mayor Plaza),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광장 부근의 뒷거리에만 약간 남아 있음
- 구시가지를 둘러싼 신시가지는 19세기 후반의 철도 개통을 전후해서 주택지, 공장 등이 들어서고 교통시설이 갖춰진 지역임
- 본래 마드리드는 정치도시로서 궁전이 있었을 뿐 산업은 미비하였으나, 1936～1939의 스페인 내란 후 에스파냐 정부가 내전에 의한 파괴의 복구 과정에서, 주변 농촌으로부터 많은 건설노무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마드리드 성격을 크게 바꿈

프라도 미술관, Museo Nacional del Prado

- 프라도 미술관의 연 관람객 규모는 약 273만 명(2010년), 세계 11위
- 1819년에 개관하였고, 12세기부터 초기 19세기까지의 유럽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고 있음
- 1층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들을 볼 수 있으며, 스페인 회화, 플라드르 회화 등이 전시되어 있음
- 2층에서는 스페인 회가들의 활약상을 더욱 상세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플랑드르 회화, 이탈리아 회화, 프랑스 회화 등 유럽 다양한 국가들의 회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음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Reina Sofia Museum

-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스페인의 국립 현대 미술관으로 1980년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알바가 건물을 복원하고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끝 무렵 호세 루이스 이니구에스 데 온소뇨와 안토니오 바스케스 데 카스트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였는데, 가장 놀라운 특징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3개의 엘리베이터 탑임
- 최근에 2개의 임시 전시실과 강당, 도서관, 사무실 등을 갖춘 8,000평방미터 규모의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 증축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1945년생)로, 그는 주변부와 교감을 이루는 건물을 창조해 내기로 명성이 높고 강철과 유리를 사용하여 그림자와 빛과 형태의 유희를 이루어 내기로 유명함
- 장 누벨은 미술관과 인접해 있던 3채의 건물을 개조해, 미술관 서쪽 외관이 드러나도록 함. 미술관의 입구는 조명과 프로젝션 기능이 있는 스크린이 달려 있는 강철과 유리의 탑 안에 들어 있음. 이런 탑이 미술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

스페인 – 마드리드(Madrid)

카이사포럼, Caixa Forum Madrid

- 카이사포럼이 자리한 곳은 중앙 전력발전소와 주유소 등이 있었던 낙후지역이었다. 주유소가 철거되면서 프라도 거리와 옛 발전소를 개조하여 카이사포럼 사이에 작은 광장이 생겨났다. 옛 발전소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부분이 벽돌 외피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과 건물 하단부를 분리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카이사포럼'이라는 새 건축물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유세라 공공도서관, Usera Library by Bbalos & Herreros

- 마드리드 소재 건축회사 아발로소 & 헤레로스는 유세라 도서관을 통해 저비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얼마나 인상적인 것으로 탄생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줬다. 겨우 4층 높이의 낮은 건축물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파사드에서 볼 수 있는 각층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은 실제보다 훨씬 높은 건축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스페인 – 마드리드(Madrid)

엘 미라도르, EL Mirador by MVRDV

- 엘 미라도르는 MVRDV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MVRDV는 주택 분야에 있어서 인구 밀도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공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건축업체다. 건물의 외관을 석재, 콘크리트, 타일 등과 같이 다양한 재료로 마감하였고, 건물 중앙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열린 공간을 배치하였고, 바닥에 수평으로 안뜰을 만드는 대신에 13층 중간을 뚫어 지상에서 50m 지점에 수직으로 5층 높이의 공간을 만들었다

카라반켈 하우징, Carabanchel Social Housing by FOA

- 카라반켈 하우징은 유럽건축가인 FOA(Foreign Office Architects)에 의해 설계된 공동주거공간이다. 대지는 남북향 100X45m 사변형 평면이다.
- 건축물의 각면은 1.5m의 테라스가 있어 계절마다 사용될 수 있으며, 대나무 루브르로 형성된 차양막으로 동쪽으로부터의 강한 햇살의 보호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스페인 – 마드리드(Madrid)

Madrid Public Housing by Thome Mayne

- 이 프로젝트는 2, 3, 4개의 침실 유닛을 가진 141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었다.
- 고밀도 도시환경에서 단일가족의 주택의 이상적인 개념은 그 주택의 개수를 최대한 늘려 개인과 공공영역을 모두 형성하는 야외공간으로의 직접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예카스 51, Vallecas 51 by Somos Arauitectos

- 123 소셜 그린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123개의 아파트로 구성된 8층 높이의 건물이다. 창문은 6개 타입의 369개가 배치되었으며 알루미늄과 폴리카보네이드로 만들어 졌다. 실제로 플라스틱 재료를 포면 재질로 사용한 최초의 주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스페인 – 마드리드(Madrid)

바예카스 11, Vallecas 11 Social Housing by Somos Arquitec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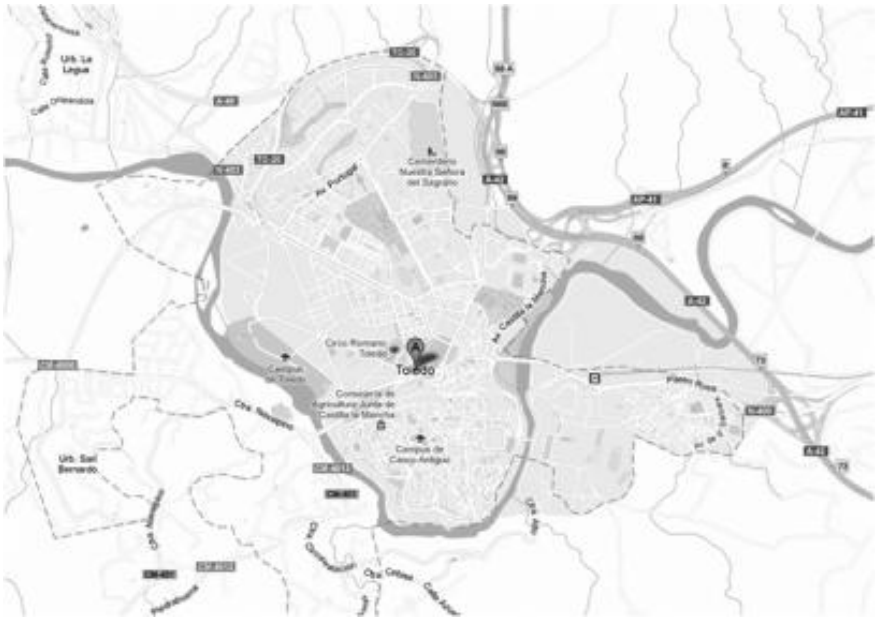
- 바예카스의 도시구조는 거주 유닛, 공공시설, 녹지들이 길에 의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각형 그리드 블록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 건축가는 매스를 두 반쪽으로 나누고 중간의 보이드를 통하여 일조와 환기를 향상시키는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공간과 매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특징짓기 위해 전체 구성 내에서 조직된 보이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볼륨을 통해 주위 건물들과의 관계성을 형성하였다.

카라반켈 하우징 II, Carabanchel Social Housing II by Dosmasuno arquitectos

- 외부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택들은 모서리쪽에 일렬로 몰려 있으며 동쪽과 남서쪽의 뷰(View)를 제공하고 경계를 구획하며 내부를 부드럽게 하며 외부를 정의한다. 이 주택들은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코어에서부터 조정된 추가적인 메스와 함께 디자인되었다. 이 고정된 코어는 태양광과 둘러싼 뷰에 따라 시공되었고 코어의 두 메인분인 거실과 침실은 남측에 위치되어 서비스 공간을 뒤로 밀어내며 필터에 의해 덮여있다

스페인_톨레도(Toledo)

- 톨레도는 3000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로 마드리드가 수도가 되기 전 1,000여년 동안 스페인의 정치문화의 중심지, 정신적인 수도로 불린다.
- 타호(Tajo)강이 에워싸며 흐르고 있는 모양새가 안전지대, 방어지대라는 라틴어 톨레툼(Toletum)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 중세시대 분위기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로마, 고트족, 이슬람,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의 영향을 받아 왔다.



톨레도 대성당, Toledo Cathedral

-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고딕양식 중 하나이며, 중요한 예술적 보배들을 간직하고 있다. 유럽 북부의 거대한 고딕 성당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이베리아 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양식이 하나로 혼합되어 있다.
- 고딕 양식이 지배적이지만, 건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양식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보인다. 높이 92m의 종루가 있는 이 대성당은 이슬람 지배시절의 모스크 자리에 건설되었다. 1227년 당시 국왕 페르난도 3세의 명으로 착공하여, 2세기가 지난 1493년에 완공되었다.
- 톨레도 대성당은 원래 정면에 2개의 탑이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한쪽 종탑만 완성되어 고르다라고 하는 18톤의 대형 종을 설치했다. 반대쪽 종탑은 팔각형 건물에 원형지붕을 올려 마무리 짓도록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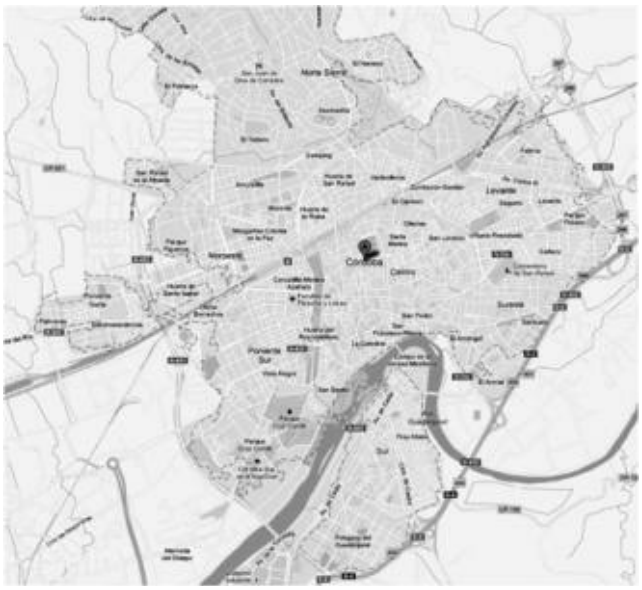
스페인_톨레도(Toledo)

라 그랑하의 에스켈레이터, La Granja Escalator by E.T. Tur+A.M. Lapena

- 톨레도는 역사적인 도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인과 이슬람 영향의 무데하르 건축의 재현만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늘어가는 관광객과 자동차 수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부상하게 되자 톨레도 시는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주차장에서 도심까지의 높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개의 에스컬레이터에 흙막이 옹벽,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등을 계획했다.
- 토레스(E.T. Tur)와 라페나(A.M. Lapena)는 6개의 에스컬레이터를 경사에 따라 지그재그 방법으로 배치하였다. 소재는 콘크리트로 하여 30m 하부의 암반 위에 기초를 둔 구조를 계획하였고 콘크리트에 톨레도 건물들이 띠는 황토색을 섞어 따뜻한 색상을 정하고, 옹벽들을 뉘어 그 높이의 부담감을 줄이며 사선처리를 함으로써 원근법을 강조하였다.
- 이 장소는 전망대와 도심의 대문 역할을 하는데, 철문이 미닫이 형태로 레일에 부착되어 있어 옛 도심의 보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스페인 – 꼬르도바(Cordoba)

- 8세기 말 이슬람교도가 코르도바에 침입하여 후기 우마이야 왕조성립 시부터 이 도시는 유럽과 이슬람 왕국의 중심지로 크게 발전하였다.
- 929년 칼리프 선언을 한 압둘 라후만 3세 시대에 코르도바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당시 인구는 백만 명, 모스크의 수가 300개를 넘었다.
- 코르도바는 문화적으로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3개 종교 문화가 공존한 도시였으나, 그 후 국토회복운동으로 이슬람교도들이 밀려나면서, 코르도바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 19세기 후반에는 대대적인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철로의 도입은 현대 도시계획의 시발점이 되었고, 큰 도로망과 작은 길들이 만들어지며 간선도로가 확충되었다.
- “코르도바의 골목길에는 시간의 윤기가 흐른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그 길은 시간이란 윤기로 빛났다. 2000년의 거리에 로마가 있었고 무어인들이 있었으며 모슬렘과 유태인에 기독교도가 함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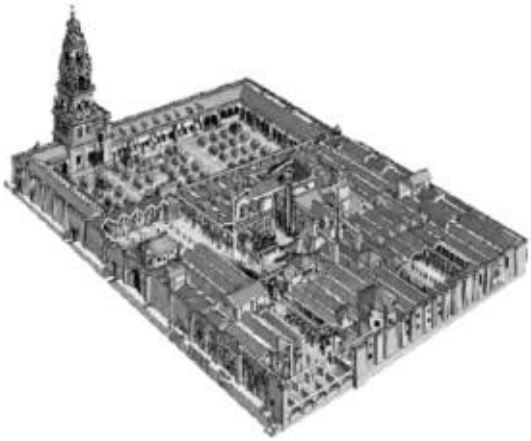
스페인 – 꼬르도바(Cordoba)

코르도바 로마교, Cordoba Old Bridge

- 코르도바 젖줄 과달키비르강(Rio Quadalquivir) 위에 230m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16개의 고풍스러운 아치로 로마시대에 만들어 졌다. 이 다리를 통해 이슬람 세력이 코르도바로 입성해 스페인 전역으로 그 세력을 뻗어나가게 되었다.
- 올드 브리지(Old Bridge)로 알려진 이 다리는 20세기 중반 산 라파엘 다리가 건설되기 전까지 코르도바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였으며, 여러 차례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개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코르도바 대성당 = 메스키타, Catedral Cordoba = Mezquita

- 메스키타는 이슬람 건축의 걸작이다. 메스키타란 스페인어로 모스크를 의미하며, 이슬람교 건축문화와 그리스도교 건축문화가 융합된 종교건축양식으로 유일무이하다.
- 이 장소엔 예전에 서고트족이 건설한 그리스도교 성당이 서 있던 곳인데, 우미이야 왕조를 세운 압둘 라흐만 1세가 785년 모스크를 처음 건설했다. 그 후 848년, 961년. 987년 3차에 걸쳐 확장되었고, 현재 길이가 180m, 너비 130m에 이르며 신도 25만 명 수용규모이다.
- 이 건축은 8세기 이슬람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한 이후 교회로 바꿔 사용해 왔다. 기독교도들은 아름다운 그 건축을 교회건축 형식으로 생뚱맞게 바꾸는 반문화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스탄불의 소피아성당을 점령한 이슬람교도들이 그 성당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내부를 관용하고 원형을 유지한 채 이슬람 사원으로 활용한 것을 상기하면 기독교가 훨씬 배타적이다.



스페인_세빌(Sevilla)

- 안달루시아의 주도, 최대의 도시 '세비아'는 1년 일조시간 3,000시간, 화끈한 도시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고향이다.
- 세비야는 15~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 무역의 독점항으로,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허락을 얻어 대항해를 떠난 곳은 그라나다였으나 배는 세비야에서 출발했다. 배는 과달키비르 강을 따라 대서양으로 빠져 모로코 서쪽 카나리아 제도에서 잠시 머물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항했다.
- 세비야는 남미 등 식민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문화를 학문과 예술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눈부신 비약을 이루었다.
- 유럽을 휩쓸며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정복했던 전설의 인물 돈 후앙도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애정 행각을 시작했으며 돈 호세의 심장을 도려내던 카르멘이 일하던 곳도 바로 세비야의 담배공장(지금은 대학교 건물) 이었다.

Sevilla Cathedral

-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이슬람건축 + 르네상스 건축양식이 혼합된 성당이다.
- 1248년 스페인이 무어인들부터 세비야를 수복한 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알모하드 모스크는 기독교 교회로 축성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성당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모스크를 허물어 버렸고, 현재 남은 모스크의 흔적이라고는 연못과 히랄다 종탑이 딸린 현관이 있다

스페인_세빌(Sevilla)

스페인 광장, Plaza de Espana

- 스페인 문화는 곧 광장(廣場) 문화로, 유럽의 스페인 광장들 가운데 그 최고봉이 바로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이다.
- 극장식 반원 형태의 건물에 둘러싸인 광장은 아줄레주 양식(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채색된 타일로 건물을 장식하는 양식)으로 지었다.

메트로폴 파라솔, Metropol Parasol

-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재구조물인 메트로폴 파라솔이 6년간 공사를 마치고 세비야에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문을 열었다
- 넓이가 18,000㎡ 인 이 나무 구조물은 세비야의 엔까르나시온 광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중세 세비야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직물에 착안해서 건축가는 직물구조의 씨줄과 날줄로 구조물을 만들었다

스페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항만 규모와 상공업 활동에 있어서는 에스파냐 제1의 도시이며, 파블로 피카소, 호안 미로, 안토니오 가우디 등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도시이다.
- BC 201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아직도 구(舊)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고딕가(Gothic街:바리오・고티코스)에는 그 당시의 성벽이 일부 남아 있다.
- 8세기에는 무어인이 점령, 801년에 샤를마뉴(카를大帝)가 이를 해방하고 지배하였으며, 12세기에는 카탈루냐 백작과 아라곤 여왕의 결혼으로 아라곤 왕국이 이루어졌고 바르셀로나는 그 수도로서 해운・수공업・금융의 중심으로서 번영하였으며, 14세기에는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 무렵에 지어진 고딕식 대성당(13세기 말)을 비롯하여 역사적 건조물들이 구시가 중앙에 많이 남아 있으며, 당시의 바르셀로나의 해양법(海洋法)인 콘술라도 데 마르는 오랫동안 그 권위를 유지하였다.
- 1469년에 아라곤과 카스티야의 통일로 지방도시가 되었으나, 고유의 카탈루냐어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1550년에 창립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에스파냐의 선진지역으로, 카탈루냐 문화에 대한 긍지와 진보적 시민자치의 전통 및 강력한 상공업을 기반으로 번번이 독립을 요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 17～19세기에는 프랑스군의 침공을 여러 차례 받아, 북부 카탈루냐 지방을 프랑스에 빼앗기기도 했다.
- 19세기 말부터는 에스파냐의 사회주의 및 무정부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1936～39년의 에스파냐내란 당시에는 공화정부(인민전선정부)의 마지막 거점이 되었다가 1939년 1월에 프랑코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 바로셀로나가 세계적으로 도시 디자인의 모범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은 1859년 일데폰스 세르디(1815～76)라는 토목기사 세르디의 도시계획안에 따라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정사각형 구획으로 구획한 데 기인한다.
- 19～20세기 카탈루냐 지방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활동은 바로셀로나의 독특한 근현대 도시성장의 형태를 결정하였고, 19세기 전후에 과거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도시가 어떠한 형태로 근현대화 되는가 보여주고 있다.
- 바로셀로나의 도시 디자인은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올림픽 유치 후 바로셀로나 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해 외부의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도심부 차량 운행이 줄어들자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차도의 3～4배로 넓힐 수 있었다.
- 바르셀로나의 공공디자인 정신은 도시 구석구석 숨어 있다. 건물 안은 주인 마음대로 꾸밀 수 있지만, 건물 외벽은 광고를 내걸 수도 없고 색칠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건물 밖은 시민들의 공공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안토니 가우디, Antoni Gaudi, 1852~1926

- 바르셀로나 인근 레우스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아버지가 주물제조업자였다.
  "내가 공간을 느끼고 보는 재능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와 조부와 증조부가 모두 주물제조업자였기 때문이다. 몇 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건축가인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주물제조업자는 표면으로 부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 가우디는 17세때 바르셀로나 대학 이공학부를 거쳐 바르셀로나 시립 건축전문학교에 입학했다.
- 가우디가 졸업할 때, 학장 에리아스 토헨트는 "우리가 지금 건축사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친놈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 그의 건축물은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세하고 강렬한 색상의 장식이 주를 이룬다.
- 가우디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로, 1884년부터 건축을 책임지면서 설계와 건축 작업에 전 재산을 바쳤으며, 1926년 전차에 치여 죽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생활하였다.

스페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카사밀라, Casa Mila, 1906~1910

-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으로 그의 가장 큰 주거 프로젝트이자 지금까지 세워진 건축물 중에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건물 중 하나이며,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간주된다. 바로셀로나의 사업가 로제르 세지몬 데 밀라와 그의 아내 로세르의 의뢰를 받아 카사밀라를 설계하였다.
- 당시 가우디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건축가로, 전통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형태의 영감을 얻은 조각적인 건축과 색깔의 모자이크와 타일의 사용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 지붕은 거대한 모래 언덕처럼 솟아오르다 작은 다락방 창문이 꿰뚫고 나오고, 그 뒤로 다양한 색상의 모자이크로 덮인 괴상하고 추상적인 굴뚝을 쌓아 올렸다.

구엘 저택, Palau Guell, 1886~1890

- 카탈루냐 섬유사업가 에우제비 구엘 백작을 위해 기꺼이 지은 구엘 저택은 가우디의 새로운 사상과 형태에의 탐구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첫번 째 대규모 작품이다.
- 또한, 구엘 백작이 가우디에게 건축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도록 해주기 위해 의뢰한 작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구엘 저택은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기둥을 사용하여 천정으로 가면서 점점 퍼지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 지붕 위에 올라가면 깨진 도기 파편으로 장식한 20개의 감각적인 형상의 굴뚝과 환기구를 볼 수 있다.

스페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La Sagrada Familia, 1883~

- 가우디는 자신의 역작이 될 만한 건물이자 종교적인 믿음의 발현 행위이기도 한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성 가족성당)를 짓기 위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모두 포기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건물을 설계했으며, 건설자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부를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다.
- 1883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완성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건축물이 가우디의 원래 설계안대로 완성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모호한 문제인데, 스페인 내전 동안 가우디의 드로잉을 보관하고 있던 작업실이 불타 버렸기 때문이다.
- 가우디의 디자인에는 가우디만의 독특한 취향이 낙인처럼 찍혀 있다. 자연 속의 모습을 반영하는 유기적인 곡선과 형상, 거의 동화 속 건물처럼 환상적인 형태, 그리고 화려하게 채색된 타일 작업 등이 그 예이다.
- 3개의 파사드에는 각각 4개의 첨탑이 세워져 총 12개의 탑이 세워지는데 각 탑은 12명의 사도(제자)를 상징하며 모두 100m가 넘는다. 또 중앙 돔 외에 성모마리아를 상징하는 높이 140m의 첨탑이 세워진다.
- 재료는 석재인데 195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1953년부터 재개하였으나 돌이 부족하여 인조석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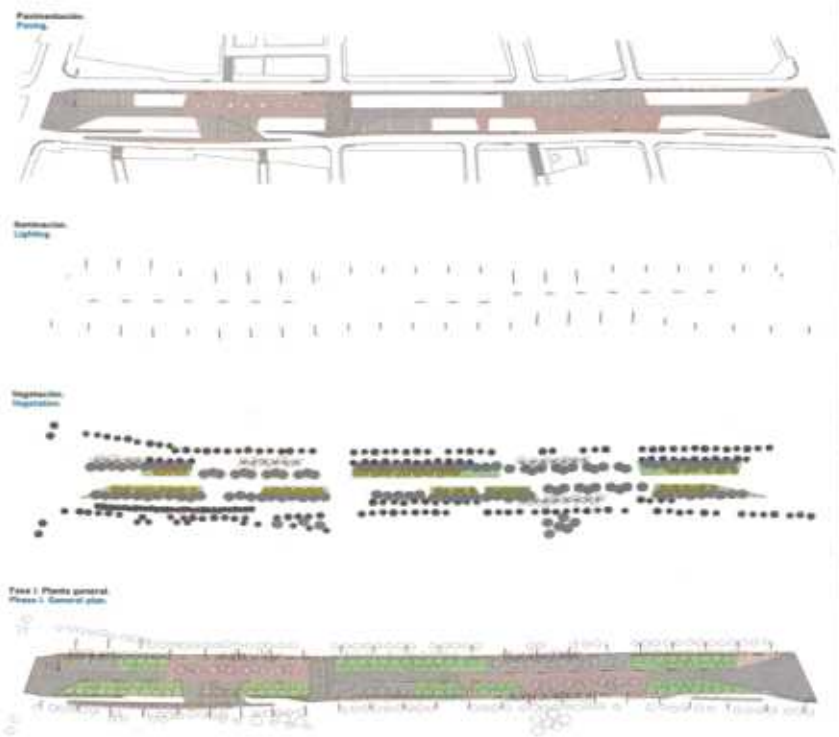
바로셀로나 파빌리온, Barcelona Pavilion

- 바로셀로나 파빌리온은 근대 건축가 4대 거장 중 한명인 미스 반 데로(Mies van der Rohe)가 디자인한 것으로, 1929년에 바로셀로나 엑스포 당시 독일관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엑스포가 끝난 1930년에 철거되었다가 건축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다시 복원되었다.
- 미스 반 데로의 대표적 아포리즘은'Less is more'(Minimalism) 이다. 바로셀로나 파빌리온은 전반적으로 미니멀(minimal)한 느낌으로, 기둥으로부터 독립된 벽, 그 벽은 자유자재로 위치하며 구심점이 사라진 공간, 그 공간은 커튼월과 유리로 둘러싸여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제공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디자인되었다.
- 가느다란 얇은 기둥의 리드미컬한 배치 그리고 기둥으로부터 해방된 수평(천장)과 수직(벽), 자유로운 질감, 위치를 통해 또 다른 공간을 구성하는 벽,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만들어 낸다.

스페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Platform over the Ronda del Mig, by Olga Tarraso

- Sants Street와 Madrid Avenue 사이에 위치하는 Ronda del Mig 위에 외피를 한 단 얹은 모습인 이 계획은 도로의 양쪽으로 주거지가 위치해 있고 도로는 자연 지형의 레벨차로 인해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지형적 조건을 모티브로 하여 주거지 사이를 이어주는 인공의 판을 하나 삽입하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 이 계획으로 인해 양쪽 주거지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도심광장을 얻게 되었다. 광장 아래로 주차장이 확보되었고 기존 도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한 공간에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광장이라는 3개 기능이 가능해졌다.
- 이 인공 데크의 폭은 27m로 중앙보도가 6.6m이고 양쪽에 10m씩의 도로가 다시 위치하게 된다. 단면상 이 부분은 다양한 경사를 가지면서 나무와 잔디밭으로 통하게 되며, 중앙보도와 양쪽도로는 0.5m ~ 1.6m까지 레벨차를 갖는다.



스페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바르셀로네타, Barceloneta

- 올림픽 준비를 위한 도시 디자인 사업으로 올림픽 시설과 도시 중심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접근이 어려웠던 해변을 매혹적으로 꾸몄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르셀론네타이다.
- 대규모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고 도심과 연결되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잔디공원 등 친환경 생태고리도 만들었다. 프랭크 게리의 고래 조형물이 랜드마크로 등장하였으며 유명 레스토랑과 각종 클럽도 들어섰다. 이로서 이 지역은 바르셀로나의 가장 아름다운 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그바 타워, Torre Agbar by Jean Nouvel

- 바르셀로나에서 3번째로 큰 역사적 건축물이다.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했다. 지상 34층, 지하 4층의 이 건물은 현재 아구레스 데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 상수도회사)의 사무실로 쓰인다고 한다. 외피는 4,500백장 창문과 이를 보호하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조명은 이 창문에 40,000개의 LED 조명창을 달아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또한, 온도감지센서를 부착해 건물의 파사드 창문 블라인드 개폐조절이 가능하다.

스페인 – 발렌시아(Valencia)

- 발렌시아(스페인어: Valencia, 카탈루냐어: València)는 스페인 발렌시아 주의 주도이다. 인구는 약 81만 명(2008)으로 제지(製紙)·담배·식료품 공업의 중심지이며 마요르카 섬과 함께 보양·관광지로 되어 있다.
- 기원전 138년에 로마의 식민 도시로 건설된 마을로 스페인에서 가장 역사적인 건축과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다.
-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어 스페인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다. 발렌시아 도시권의 인구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70만 명 - 약 230만 명이다. 투리아 강 하구에 위치하며, 발렌시아의 기후는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은 지중해성 기후이다. 발렌시아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라론하 국립 도자기 박물관, 발렌시아 대성당 등이 있다.

발렌시아 세계적 건축가 칼라트라바의 '예술과 과학의 도시' 1996-2005

- 스페인의 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발렌시아(Valencia)로 들어서면서 독특한 디자인과 하얀 타일표면 때문에 눈이 부실만큼 빛나는 건물을 볼 수 있다. 이는 발렌시아 출신인 세계적인 건축가 싼티아고 깔라트라바가 그의 고향에 세운 '예술과 과학 도시(Ciutat de les Arts i les Ciències)'로,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문화 및 건축단지이다. 여기엔 스포츠시설들과 놀이공원도 겸비되어 있어 한 건축물로 지나지 않는 작은 도시로 불린다.

- 예술 및 과학 도시는 1957 년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한 후 배수관을 통해 재배치 된 강 Turia의 강가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강바닥이 그림 같은 가라앉은 공원으로 변했다.
-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와 펠릭스 칸델라(Felix Candela)가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1996년 7월에 건설의 첫 단계를 시작했으며 1998년 4월 16일 L' Hemisfèric이 개장하면서 엘 팔라우 드 레 아트 레이나 소피아 (El Palau de les Arts Reina Sofia)가 취임했다. 예술 및 과학 도시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2005년 10월 9일 발렌시아 커뮤니티 데이(Valencian Community Day)이다.
- 당초 3억 유로로 책정된 예산은 초기 예상비용의 약 3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증액되었다.

'세어링 타워(Sharing Tower), Guallart Architects / La Torre Sector, Valencia

- 주택용 건축을 공동체적 공간으로 탄생시킨 또 다른 좋은 예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 개발한 셰어링 타워 (Sharing Tower)를 들 수 있다. 2007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발렌시아의 셰어링 타워는 15인의 건축가들이 각각 한 건물씩 도맡아 총 15개 아파트 건물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 단지로서 주민들이 텔레비전, 세탁소,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주요 생활공간으로 전환시켰다. 엘리베이터는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취침, 수세, 탈의 등을 위한 사적 공간은 아파트 주변 공간 구석구석에 배치해 넣은 건축 컨셉은 능히 미래주의적이라할 만하다.

스페인 – 그라나다(Granada)

- 그라나다(Granada)는 스페인 안달루시아(Andalusia) 자치 지역인 그라나다 지방의 수도이다. Darro, Genil, Monachil 및 Beiro 4개의 강의 합류점인 시에라 네바다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 해발 738m(2,421ft)의 평균 고도에 있지만 지중해 연안 코스타 트로피컬(Costa Tropical)에서 차로 불과 1 시간 거리에 있다.
- 2005년 그라나다 고유 도시인구는 236,982명이었고 전체 도시인구는 472,638명으로 스페인의 13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의 약 3.3%가 남미 출신으로 스페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31%, 전체 인구의 1%)
- 알 함 브라, 무어의 요새와 궁전이 있으며, 이는 안달루시아 이슬람 역사 유산 중 가장 유명한 건물이다. 건축에 대한 Almohad의 영향은 Moorish와 Morisco건설의 훌륭한 사례와 함께 Albaicín이라고 불리는 그라나다 지역에서도 잘 보존되어 있다.

알람브라(Alhambra) 궁

- 아랍어 말 그대로 "붉다"라는 뜻을 지닌 궁전과 요새단지로, AD889년에 지어졌다. 로마시대의 요새로, 13세기 중반에 에미리트의 나스 리트 에밀 모하메드 벤 알 - 아흐 마 (Nasrid emir Mohammed ben Al-Ahmar)에 의해 재건되었다.
-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 지역에서 머물던 아랍 군주의 저택이었던 곳으로 그라나다 시의 남동쪽 경계에 있다. 현재에는 이슬람 건축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르네상스식 건물이 카를로스 1세 때 추가되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 전체 궁전은 해발 740m의 고원에 위치하는데 너비는 205m에 달한다. 서북서, 동남동의 방향으로 건물이 뻗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142,000 m^2이다. 견고하게 쌓아진 벽이 있으며 주위에는 13개의 타워가 있다. 다로 강이 흘러가며 깊은 골짜기를 이루며 그라나다 지역을 양분한다. 아사비카 계곡이 있으며 주위에는 알람브라 공원이 남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 무어인종과 스페인의 미술을 결합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우아한 기둥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으며 종유석이 솟아 있는 듯이 외부가 이뤄져있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듯 한 느낌이 가미된다. 웅장한 아랍 문화의 유적이 새겨져 있으며 수많은 왕이 이곳을 거쳤다. 1492년 기독교 세력이 재정복하면서 정복자들이 궁전을 개조하기 시작하였다. 흰 빛깔의 도료로 바뀐 것도 이때 이뤄진 일로 도금과 회화 작업도 이 시기에 추가되었고 기존의 가구는 개보수되거나 혹은 없어졌다.
- 카를로스 1세(1516-1556)는 당대 르네상스 양식으로 궁전의 건축 양식을 수정하는 한편 겨울궁전을 허물어버렸다. 펠리페 5세(1700-1746)는 주위 전각과 내부 방을 이탈리아 식으로 바꾸는 한편 무어 인의 양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완성도를 가미하였다.
- 수세기 동안 스페인의 지배 하에서 이슬람의 영향은 상당 부분 손상되었다. 1812년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백작이 건물에 딸린 몇 개의 탑들을 철거하였고, 1821년 지진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복구는 1828년부터 이뤄져 183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페르난도 7세가 추진했던 이 계획은 이후 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포르투갈 – 리스본(Lisbon)

- 리스본(영어: Lisbon 리즈번[*], 포르투갈어: Lisboa 리스보아[*], 문화어: 리스봉)은 포르투갈의 수도로, 리스보아 현의 중심도시이자,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도시다.
- 대서양에 면한 항구 도시로, 인구는 564,477명(2007년)이며, 리스본의 경제 규모, 삶의 표준, 시장 크기, 그랑드 리스보아(Grande Lisboa) 소구역 등 이베리아 반도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중심지다.
- 유럽 연합의 유럽 마약 감시 센터(EMCDDA)와 유럽 해양 환경청(EMSA),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의 본부가 리스본에 있다.
- 시가지는 고지대인 알투 지구와 중심부의 저지인 바이샤 지구로 나뉜다. 두 지구는 공공 엘리베이터와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서로 뻗어 있는 시가지에는 12개 이상의 언덕이 있다. 1966년에 완성된 서유럽 최장의 현수교인 "4월 25일 다리"는 처음으로 건너편 연안과의 사이를 연결하여 지역 개발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 현재 중심 도로의 대부분은 1755년의 대지진 후 재상 조제 폼발 후작의 지휘로 부흥과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정비된 것이다. 헤스타우라도르스 광장에서 북서로 향해 폼발 후작 광장까지 뻗은 너비 90m, 길이 1.5km의 리베르다드 거리는 리스본의 중심가이며 1880년 개통하였다. 바이샤 지구는 문화・상업・행정・교통의 각 시설이 집중해 있는 곳으로 호시우 광장과 코메르시우 광장이 있다. 호시우 광장 동쪽의 구릉 위에 상조르지 성이 솟아 있다.
- 영국과 역사적 관련이 많으며 리베르다드 거리 북서쪽의 에드워드 7세 공원은 영국왕의 포르투갈 방문을 기념한 것이다. 서쪽 끝의 벨렝 지구에는 마누엘 양식의 벨렝 탑(1515)이 서 있고, 그 북동에는 16세기 마누엘 양식의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다. 국립고미술관, 굴벤키안미술관, 해양박물관, 고고학・인류학박물관 등 문화 시설도 많다. 리스본 대학교, 가톨릭대학 등의 종합 대학이 있다.

리스본 벨렘(Belém)지구

- 포르투갈어로 산타마리아 데 벨렘(Santa Maria de Belém), 줄여서 벨렘이라 부르는 이 지역은 베들레헴(Bethlehem)에서 유래된 것이다.
- 리스본의 남서측 외곽에 위치한 벨렘지구는 대항해시대 포르투갈의 영광이 서려있는 곳으로, 처음으로 엔리케왕자가 모로코 세우타를 정복하기 위해 출항했던 장소이자 희망봉을 돌아 탐험했던 바로톨로뮤 디아스, 세계를 항해한 페르난도 마젤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의 출항지이도 하며, 신세계 발견후 유럽으로 되돌아가던 중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정박한 지역이기도 하다.

리스본 남부의 벨렘지구 위치도

벨렘지구의 전기박물관과 4월25일 다리

대항해시대를 기념하는 발견탑(Padrão dos Descobrimentos)

- 신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부로 리스본이 번성하던 이 시기동안 벨렘탑을 비롯하여 제로니모 수도원이 이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오늘날 이들을 중심으로 벨렘지역에는 많은 문화공간들이 산재해 있다. 인기있는 마차박물관과 함께 아유다궁(Ajuda Palace)은 18세기 리스본의 장관과 유럽 왕실가족들의 영화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이 밖에도 베라르도박물관(Berardo Museum)과 벨렘문화센터, 전투박물관(Museu do Combatente), Champalimaud Centre for the Unknown 등이 있다.

포르투갈 – 리스본(Lisbon)

- 신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부로 리스본이 번성하던 이 시기동안 벨렘탑을 비롯하여 제로니모 수도원이 이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오늘날 이들을 중심으로 벨렘지역에는 많은 문화공간들이 산재해 있다. 인기있는 마차박물관과 함께 아유다궁(Ajuda Palace)은 18세기 리스본의 장관과 유럽 왕실가족들의 영화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이 밖에도 베라르도박물관(Berardo Museum)과 벨렘문화센터, 전투박물관(Museu do Combatente), Champalimaud Centre for the Unknown 등이 있다.
- 벨렘궁전 주변의 비에이라 포르투엔사 거리(Rua Vieira Portuense)에는 테라스가 있는 매력적인 전통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가 많다. 그 밖에도 이 지역에는 강변을 따라 방문해 볼만한 많은 역사적 장소와 시설들이 있으며, 특히 4월25일 다리(25 de Abril Bridge)가 유명하다. 월요일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문을 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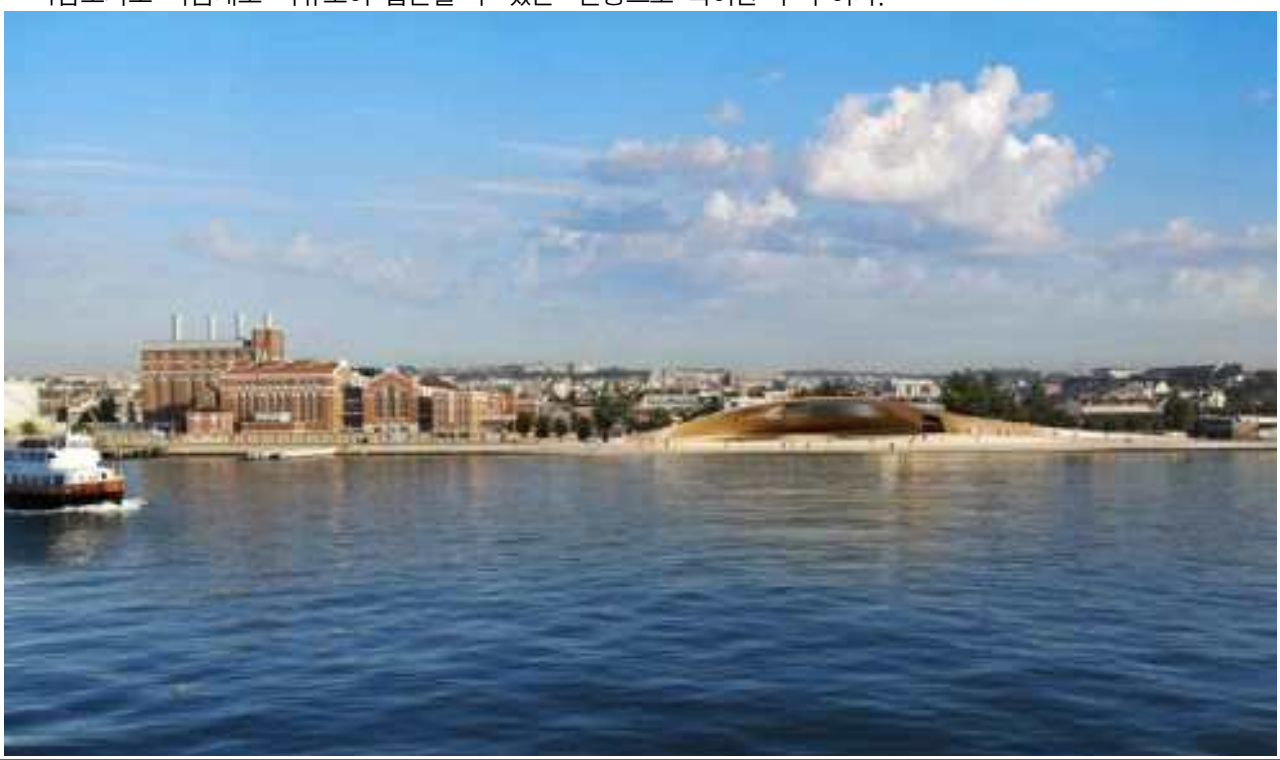
벨렘지역(출처 : 인터넷 자료)

전기박물관(Meseo de Electricidade)

- 전기박물관(포르투갈어로 Museu da Electricidade)은 과학과 산업사를 바탕으로 그 기본개념으로 하여 에너지 혁명을 보여주는 문화센터이다. 이 곳에서는 실험적인 테마 전시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어로 테주(Tejo)강이라 불리는 타구스 강변의 벨렘지역에 위치해 있다.
- 벨렘지역은 훌륭한 역사적 기념비들이 집중된 리스본 지역 중 하나로, 이 곳에는 제로니모수도원(Jerónimos Monastery)과 벨렘문화센터, 벨렘탑, 포르투갈어로 대통령궁 겸 박물관인 파드라옹 도스 데스코브리멘토스(Padrão dos Descobrimentos), 마차박물관(Coach Museum), 포르투갈어로 국립밧줄박물관인 코르도아리아 나쇼날(Cordoaria Nacional) 등이 있다. 공공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박물관은 40년 이상 리스본을 밝혀준 옛 테주발전소의 주변을 따라 펼쳐진다.
- 박물관은 1990년에 개관하였으며, 그로부터 10년 뒤에 전기박물관의 건물과 설비는 새로운 재생과정을 거쳐 완전히 개조되어 새로운 내용의 박물관으로 2006년 재개관된다. 현재, 상설전시실에는 과거 있었던 원래의 기계 그대로를 존치하여 옛 테주발전소(Tejo Power Station)의 운영 및 작업환경을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교육용 게임, 옥외 태양발전 전시, 극장, 콘서트, 컨퍼런스, 에너지 등을 주제로 다룬 교육적이고 유희적인 공간을 비롯하여 (그림, 조각,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포르투갈 – 리스본(Lisbon)

옛 테주발전소 부지에 들어서는 EDP재단 문화센터(EDP Foundation Arts & Technology Centre, Lisbon)

- 전기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옛 테주발전소의 동측 부지에 영국건축가인 아만다 레베테(Amanda Levete)가 설계한 EDP재단 문화센터가 건립중이다. 1,900만 유로의 공사비가 소요될 이 문화센터는 전시위주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건축물은 "누구나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대중들에게 개방적인 건물"로 디자인되었다.

- 새 문화센터는 전기박물관 옆의 건축물을 헐고 건립된다. EDP재단 회장은 특히 이 작업이 벨렘지구에 만들어진 문화축의 주요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기존의 강변산책로 주변에 나선모양의 지붕이 있는 아만다 레베테의 이 건축물 디자인은 이 대지를 "특별히 허가된 독특한 장소"로 만들고 있으며, 테주강을 이 건축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EDP재단 문화센터 방문객들은 이 건물 주변뿐 아니라 건물 위로도 걸을 수 있으며, 강변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사로를 통해 문화센터 입구로 갈 수 있다. 이 곳은 비록 전시물을 보려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마음대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진정으로 특이한 부지"이다.